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살리기 나선 네 청년불자



대구경북지역 대불련 살리기에 뜻을 모은 김현욱, 박경훈, 박민지, 정강민씨(왼쪽부터).

“불교 관심있는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지부(이하 대경지부)를 살려보자는 지역의 젊은 불자 네 명이 12월 5일 밤 대구 보현사에 모였다.

박민지(대구가톨릭대 98학번) 김현욱(경북대 99학번) 박경훈(대구대 01학번, 현 대경지부장) 정강민(보건대 02학번, 차기 대경지부장) 씨가 주인공.

민지 씨는 4년 전 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해까지 대경지부 간사로 활동했고, 2006년 간사로 활동했던 현욱씨는 내년 봄 졸업할 예정이다. 이미 대학을 떠났거나 곧 대학을 떠날 이들이 대불련의 미래를 걱정하며 겨울밤에 모인 것은 대불련 대경지부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2007년에 해체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대경지부는 3~4년 전까지만 해도 15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

마다 회원이 줄어 현재는 경북, 영남, 계명대학 등 8개 대학의 지회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회원이 많다는 경북대 불교학생회의 회원이 2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어쩌면 조만간 모든 지회가 문을 닫을 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 이들을 감싸고 있다.

지회 감소에 3년 결사 돌입

통합운영 통한 활성화 모색

보현사에 모인 네 명의 젊은 불자들은 “대학마다 지회가 없어지더라도 불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누구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이름아래 모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년 전 불교에 관심있던 선배들이 대학과 상관없이 모여 범문화(대경지부의 모태)를

창립해 활동하다가 지회를 설립한 것처럼 대경지부의 이름으로 통합운영하면서 지회의 활성화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한 두 해 만에 쉽게 이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안다. 그래서 3년 결사를 생각했다.

이들은 우선 시대에 부합하는 대불련 대경지부의 비전과 목적을 찾는 데 모든 전력을 쏟을 예정이다. 그리고 50주년을 맞는 2007년 2월 그 첫 수행과제로 예비대학생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지씨는 이를 위해서 지역교계 스님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했다. “대불련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불 잘 아는 지혜와 힘이 생겼다”는 현욱 씨는 “많은 대학생들이 대불련 활동을 통해 인연법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대구 불광사 산사 음악회

대구 북구 읍내동 불광사(주지 관암)가 12월 1일 대구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연 꽃향기 깨달음의 만남을 주제로 제3회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선생님과 어린이의 시낭송으로 시작한 이날 음악회는 불광사 연꽃 합창단의 찬불가와 해금 연주단인 ‘이현의 농’이 들려주는 해금연주와 아마추어 색소폰연주단 조은친구들의 색소폰 연주 등이 이어졌고 불교방송에서 행복한 미소를 진행하는 성전 스님이 특별 출연해 지역불자들에게서 큰 박수를 받았다. **배지선 기자**

어르신들과 함께 송년행사

대불련 대구경북 동문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동문회(이하 대경동문회, 회장 임혜수)가 12월 2일 사회복지법인 신안사랑마을에서 송년 자비실천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1부 법요식, 2부 만찬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대경동문회는 2006년 사업보고와 2007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대경지부 소속 8개 지회에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20만원씩 수여했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송년법회, 15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대구 동화사가 12월 15일 오후2시 대덕문화전당에서 불기 2550년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불교계 유망원 원자들의 귀여운 재롱잔치와 서울전문난타공연팀의 난타공연이 곁들여 펼쳐질 예정이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의 송년법문이 이어질 계획이다. 또, 한 해 동안 수행, 포교, 봉사, 가람봉사 부분에 공헌이 큰 우수불자와 중무감사우수사찰에 대한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053) 982-0101 **배지선 기자**

대구 법왕사, 시와 음악의 밤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주지 실상)가 명승년을 보내며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시와 음악의 밤 행사를 12월 4일 법왕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서지일 시인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강가에, 신평교, 경정전 윤미전 시인 등의 시 낭송이 이어졌고, 사이사이 대금과 시조창, 플루트 연주 등이 어우러지며 불자들을 깊은 밤 그윽한 시와 음악의 향연에 빠져들게 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배추속 짹짹 채워 넘치는 인정

대구 보림사 김장 봉사

12월 5일,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보림사(주지 선주) 후원이 시끌벅적하다. 김장봉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5톤 트럭 분량 3700여 포기의 배추가 보림사에 들어온 것은 11월 30일, 12월 1일부터 시작한 김장이 5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작은 사찰에 부려놓은 3000여 포기의 배추는 그야말로 산더미다. 보림사에 있는 대형 고무 통 20여개가 모두 동원돼도 부족하다. 이미 한차례 소금 절입이 끝난 배추들이 한곳에서 행궤지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양념 비비기가

늘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이웃에 사는 몇몇 가구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해마다 가구가 늘고 범위가 늘어나면서 이제 옥포면 전체의 불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난 4일에는 면장부터 면 직원들이 모두 자원봉사에 동참하기까지 했다.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과 나눠주는 9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교회 다니는 학생이 ‘교회에서 고기를 사준다’며 받지 않는 통에 봉사소 직원들 통해 물레 전달했던 적도 있고, 김장을 하는 도중에 큰 눈이 내리 김장김치에 물이 쌓이는 통에 한바탕 소풍을 피운 적



지역 인근 어려운 이웃에 김장 나눠주기 9년째

5일간 수고로 320가구 ‘행복’...면장님도 팔 걷고 동참

한창이다. 또, 이제야 소금 절입에 들어간 배추도 있고 고무 통이 비는 대로 소금 절입에 들어가기 위해 차레를 기다리는 배추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옥포면 구석구석에 있는 어려운 이웃 32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김장봉사에 동참한 불자는 모두 50여 명. 이들은 하나같이 빨간색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만김이나 풍성한 함박웃음을 지으며 울력에 동참했다. 추운 날씨에 앞으로 2~3일은 더 있어야 김장봉사가 끝날 모양이지만 울력에 동참한 신도들은 힘든 내색 하나 없다. 오히려 “이렇게 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보림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일을 9년째 이어오고 있다.

9년 전 보림사 주지 선주 스님이 쌀과 라면을 전달해 주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갔을 때, ‘국수와 라면은 많이 들어오는데 김치가 없어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한 일이 오

도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김치는 유일한 먹거리인 만큼 보람도 컸다.

이제 12월 1일은 보림사 김장 봉사하는 날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올겨울 10월 초하루 백일기도회는 모두 김장봉사에 들어간다는 것 또한 잘 알려져 있어 모든 신도들이 적극 동참한다. 한동안 뜸하던 신도들도 12월 1일이 되면 찾아와 일을 돕는다. 게다가 올 때는 모두 집에서 남은 고춧가루며 소금이며 양념재료를 가져오니 든든하다.

매년 어려운 이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안타까울 뿐 김장봉사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선주 스님은 옥포면 어려운 이웃들이 어머니같은 넉넉한 웃음으로 묵묵히 도와주는 신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사 : (054)634-3429

비슬산 천년사직 임휴사

불자 허기춘 씨 대구사찰 소재 트로트음반 내



“비슬산 천년사직 임휴사 / 부처님께 마음은 달려가도 발길은 왜 더딘가 / 말 많은 세상이라도 탈도 많은데 / 그 한 줌의 인간사 무상을 안고 기도하며 공덕 짓고 참나를 찾아 가리.”

한 트로트송의 가요음반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자인 허기춘(63·사진) 선생이 지역의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 허기춘 작사집 형태로 제작한 이 음반은 허기춘씨의 가사에 손준호씨가 곡을 붙이고 민트리가 노래했다.

허 씨는 음반제작과 관련 “지역의 사람들이 노랫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 좋지 않겠느냐”며 “흔탁한 세상 좀 더

맑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또, “노랫말에 나오는 단어 한 구절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기춘씨는 19세에 가요제작사가 데뷔한 이후 40여 년간 작사가로 활동하면서 최희준의 ‘이별의 플랫폼’ 등의 히트곡을 낸 원로작사가다. 불자집안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다는 허 씨는 ‘성철 스님’, ‘산은 산 물은 물’ 등의 노랫말을 짓기도 했는데, 최근 지역사찰을 소재로 한 CD음반 5000장을 제작해 불자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010) 7522-9922 **배지선 기자**

진정한 은사스님처럼 기초와 범패소리를 잘 닦아 주는 교육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7년 제9기 추가통신생 모집

-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입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기초철학과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겹채비 : 바라춤, 도량계작법, 다계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법, 화청(회심곡), 지옥계춤
- ◆ 과 정 : 2년(4학기) ◆ 수 강 료 : 1학기 6개월 70만원(각 학기당 동일) (비디오 교재 별도)
 - * 비디오, 테이프, 46가지 DVD까지, 비치됨. 교재는 학교에 비치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 입 학 식 : 2007년 3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까지
- ◆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 Fax 062)372-8604
-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우 502-242)
- ◆ 학 장 :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평가자)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기간

2006년 12월 28일 - 12월 31일 : 3박4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오전시간 강의, 오후시간 실기교육 위주)
 - 12월 28일 오후 2시 : 입학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육 보소칭전연,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룩, 태령, 목탁, 요령
 - 12월 29일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 녹음),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범종불사 의식하는 법
 - 12월 30일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청(회심곡), 상축하는 법, 창훈의식 하는법, 부도 제막식 하는법, 삼재기도 하는법.
 - 12월 31일 : 정월응왕불공 및 방생의식 법, 소장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육, 큰불사시 관음예문하는 법.
- 준비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녹음기 ● 숙식제공포함 교육비 : 40만원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시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 1.대령/관육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 5.회심곡(화청)2 6.구방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육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예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예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계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계) 30.작법무(육건만다라선승대계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육(간단한 관육)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 2권 100,000원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현숙)]

◆ 제품구입처 : 중무소 062)362-8604 /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